

장인바늘 프로젝트

CONTENTS PAGE

장인발굴 프로젝트	3
장인을 찾는 사람들	4
새롭게 발굴한 장인	6
장인학교 비법서	18
동네 장인을 찾아서	36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발굴 프로젝트 매거진」은 살면서 자기만의 생활기술과 지식을 터득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요리법, 수리법, 정리법 등 자기 모양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행위를 반복하지요. 이는 그저 사소한 일일 뿐일까요? 하루하루 쌓여 한 사람의 삶이 되는 특별한 일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가치 위에 시작된 <장인발굴 프로젝트>는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우리 주변의 “생활 장인”을 발견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한 무언가를 찾아 가치를 빛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에서 이를 찾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생활 속에서 교류하는 장을 꿈꿉니다. 2016년에 지역 청년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아홉 명의 생활 장인들을 발굴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년들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열세 명의 생활 장인을 찾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 책은 그 손길들로 2016년부터 <장인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를 이어오거나 새롭게 맺은 생활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당신과 인사하는 첫 장에서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 위에 펼친 책이라는 것들요. 올해 생활 장인들은 경기생활문화센터 주민협업 교육 프로그램 ‘동네 장인학교’ 등 다양한 자리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생활비법과 솜씨를 나누었습니다. 2016년에 <장인발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으나 기회가 닿지 않았던 주민들이 생활 장인이 되었고, 2017년에 발굴한 생활 장인이 희망했으나 미처 하지 못한 활동을 펼쳤지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일부 청년들은 생활 장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청소년 중에는 꾸준히 청년들과 소통하고 취재 분야의 꿈을 키우는 이도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기 시각으로 새로운 생활 장인들의 이야기를 책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기생활문화센터 ‘한뼘전시’로 확장하여 경기상상캠퍼스를 방문하는 더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장인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당신과도 만날 수 있다면 일상의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생활문화센터

장인을 찾는 사람들



서연



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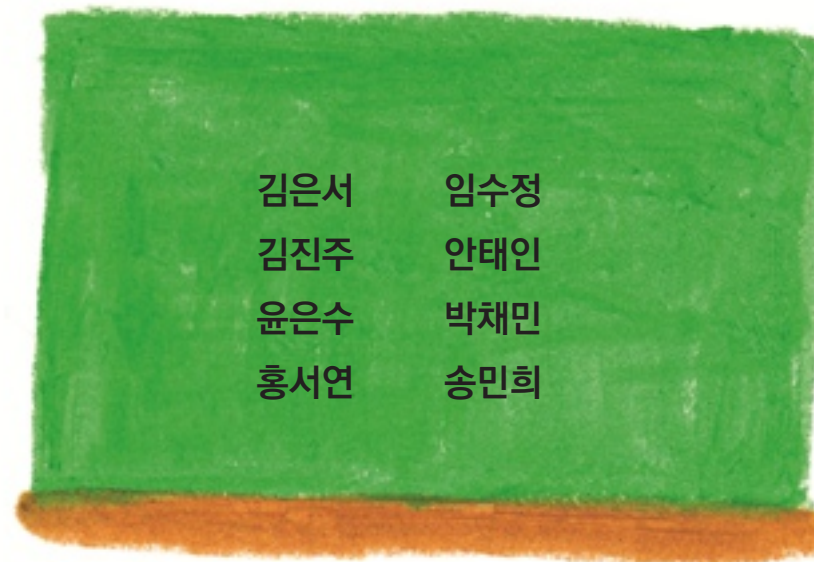


진주



은수

청소년취재단



멘토쌤



채린쌤



린지쌤



성석쌤



연우쌤

새롭게 발굴한 장인

육아의 장인 | 여혜정

취재/사진 김은서(청소년취재단)



Q. 먼저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현재 저는 강사와 크리에이터를 함께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지루한 공부보다 놀이를 통해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놀이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출산을 하면서 사회생활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다시 일을 찾고자 했지만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육아를 업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죠. 크리에이터는 저희 집 아이들이 4살, 7살 정도 되었을 때,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걸 보고 “아, 저렇게 콘텐츠를 만들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멀리 교육을 다니기 힘들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렇게 키즈 교육 채널 ‘창수 놀이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이니비니 놀이터’라는 채널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학교 방과후 수업 강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 강사, 마트 문화센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Q. 자신의 재능을 자신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전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강사를 하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학부모님들과 센터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정말 천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아이들이 모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곳에서 바로 수업의 장을 펼치는, 제가 가진 것을 다 퍼주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가지 못해도 도움을 주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게 된 거고요.

Q. 선생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대화요. 저는 체벌을 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나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둘째가 어릴 때 병원 약국에서 장난감을 사 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어요. 거의 드러누울 정도였죠. 아이는 아직 대화가 되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단 아이를 다독여 준 다음,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고 노력했죠. 말썽을 부리는 친구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돼요. 엄마들 중에 아이들이 조금 크면 매를

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바로잡아 주고, 그 과정은 대화로 풀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Q.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 인가요?

저는, 반에서 보면 되게 심하게 장난을 친다거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다루는 것이 더 좋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삐뚤어져 있는 아이들을 봐 주고, 나중에는 정말 착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 되어 다시 만날 때 정말 뿌듯해요.

Q. 교재가 아닌 집에 있는 것들을 학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해요. 심지어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 듣고 있거든요. “오늘 날씨가 맑네” 이런 말 이더라도요. 엄마는 오글거릴 줄 알아야 해요. 꽃이 피 있으면 “꽃이 너를 보고 웃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물들을 의인화해서 꾸며주기 말을 계속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생각의 차이를 느끼는 게 필요해요. 집에 있는 반찬들, 젓가락들처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도 공부와 연관을 시켜주면 좋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바로 학습 도구예요.

Q. 오늘 수업하신 수업에서는 수학 게임을 이용하셨잖아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게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다른 수학 수업들에 비해 거부반응은 적어요. 게임이라는 놀이 안에 수학을 숨겨둔 식이니까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이 잘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성장해요. 사고력과 전략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뇌 운동이 돼서 공부도 더 잘 되고, 사고력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비록 수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다양한 방향에서 성장할 수 있고, 보드게임을 하는 매너도 배울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게임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죠.

Q. 아까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집중하게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일단 집중이 잘되지 않으면, 손 유희라는 방법을 써요. 제 수업은 거의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다 보면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율동 같은 것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한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하죠. 게다가 아이들은 게임 방법을 설명해주면 차분히 듣고 있지 않잖아요. 설명이 길어지면 재미없어해요. 그럴 땐 설명을 다 하지 않고, 게임을 하면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편이에요.

Q.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놀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보드게임 회사 중에 '바오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이 정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역사에 관련된 '고 피쉬'라는 게임이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아직 게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어린아이들은 고고 젤라또라는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Q. 장인의 육아 철학을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육아는 힘든 일이지만, 해 놓고 나면, 뿌듯한 일이다.”

육아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책에 나와있는 이론에서 계속 벗어나죠. 책에서는 아이들이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걸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울잖아요. 나중에는 저도 답답해서 같이 울었을 정도예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답답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커서는 머리가 크니까 주관적인 생각과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엄마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엄마가 아프면 걱정해 줄 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학원 병에 걸린 엄마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엄마는 엄마고, 아이는 아이예요. 엄마와 아이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을 대화를 통해 맞춰 줘야 해요. 아이가 정말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뒤로 한발 물러서서 보시고, 무조건 엄마의 의견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점을 더 발달시켜줄 수 있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발굴한 장인

조화공예의 장인 | 박순복 / 재활용의 장인 | 김선애

취재 이연우(사만키로미터)



Q.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김선애(재활용의 장인) / 저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혹은 추억이 담긴 오래된 물건들을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탈바꿈하는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것들도 자원일 수 있다는 걸 알리는 일을 해요.

Q.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선애 / 4년 전쯤일 거예요. 회사를 다니며 너무 지쳐있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신 이불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입으시던 치마저고리를 잘라서 만들어주신 건데, 커서 보니 그 이불이 제게 큰 위안을 주는, 애착 가는 물건이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다 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엄마에게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엄마가 과거에 조화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요. 어느 날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서 벽지를 한 롤을 버렸길래 주어가다 엄마랑 재미로 꽃을 만들어봤어요. 물론 좋은 재료는 아니어서 소소하게 했었는데,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산단계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물건이나 과하게 소비한 뒤 나오는 폐기물들을 이용해 물건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업사이클링 소셜벤처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Q. 어머니인 박순복 선생님은 조화 장인이신데, 그럼 같은 시기에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김선애 / 네. 그때 같이 시작하게 되었죠.

Q. 박순복 장인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순복(조화공예의 장인) / 저는 한복 천으로 조화를 만들고 있어요. 20대 때 조화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꽤 오래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두었죠. 그 후로는 애들 키우면서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김선애 장인) 벽지를 가져오더니 같이 뭐 좀 만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계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20대 때 만들던 것보다 더 잘해야겠다 싶어서 2년 동안 유명한 조화 선생님께 만드는 걸 배우기도 했어요. 이제는 웬만한 꽃은 다 만들 수 있고, 염색도 가능해요. 저는 특히 야생화를 많이 만들어요.

Q. 선생님이 만드시는 조화는 어떤 곳에 쓰이나요?

박순복 / 얼마 전 무궁화 축제 때는 무대 어사화를 제작했고, 귀빈 코르사주 같은 것도 만들어요. 작년부터 꾸준히 납품 중이에요. 개인 작업으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Q. 그럼 두 분이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선애 / 네. 저는 버려지는 물건들을 이용한 공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엄마는 한복 자투리로 만드는 꽃 공예 수업을 직접 하세요. 또, 엄마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꽃 납품을 의뢰받으면 제작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Q. 엄마와 딸이 힘을 합쳐 사업을 하는 게 보기 좋아요. (웃음)

김선애 / 네. 제가 노인을 착취하고 있죠(웃음).

박순복 / (웃음) 근데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활동하는 게 더 좋아요. 이젠 오히려 제가 딸한테 일 좀 따보라고 하는걸요. (웃음) 제 나이가 되면 치매 걱정 많이 하는데, 이 활동이 치매도 예방되고, 시간도 빨리 가서 노인들을 위한 취미로 좋은 것 같아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데, 꽃 만들기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인터뷰를 하다 보니, 손재주가 좋은 분은 어머님이시고 김선애 장인님은 어머니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께 자주 감사함을 표하고 계시나요? (웃음)

김선애 / 안 그래도 매년 봄 가을로 엄마한테 한약을 지어드려야 해요. 제가 오랫동안 엄마 노동을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 엄마의 재능이 매우 가치 있다는 걸 알아서, 계속 서포트 해드리고 싶어요.

Q. 장인발굴프로젝트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박순복 / 부듯하죠. 수업을 하다 보면 꼭 잘 못 따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던 분들이, 제가 자세히 알려준 뒤 잘 완성하게 될 때, 그때 가장 부듯한 것 같아요.

김선애 / 저도 재밌었어요. 특히 경기상상캠퍼스에 오는 분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인지 수업할 때 신기한 점이 많아요. 이번엔 5~9살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하는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수업하면 엄마들이 다 해주고 아이들은 재료만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곳에선 아이들은 아이 대로, 엄마들은 엄마 대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Q. 장인 활동을 통해 삶에 변화가 생겼나요?

박순복 / 제 성격이나 생각이 밝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내 재능을 나누다 보니까.

김선애 / 장인이란 타이틀이 주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책임감 있게 해내야 할 것 같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경기도 업사이클링 장인은 나야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서 좋아요.

Q.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김선애 / 경기상상캠퍼스에 업사이클링 플라자도 생기고 있고. 이곳에 환경문제나 자원순환에 관련한 프로그램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 혼자 하기보다, 동아리처럼 같이 할 분들을 발굴해서 활동해보고 싶어요.

새롭게 발굴한 장인

전통자수의 장인 | 곽복희

취재 이연우(사만키로미터)



Q. 선생님을 소개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수의 매력을 알리고 싶은, 자수하는 사람 곽복희입니다. 저희 엄마랑 이모들이 부업으로 자수를 놓곤 해서, 5~6살 때부터 자수를 접했어요. 본격적으로 자수를 배운 건 15살 때쯤이고, 주로 병풍 자수를 놓는 이모 밑에서 배웠어요. 재미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하게 되었네요.

Q. 자수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공모전에도 자주 나가요. 전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몽골 대사관 초청으로 몽골에서 전시했고, 이번엔 스웨덴 몰타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어요.

Q. 자수를 재미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자수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되었나요?

앞서 말한 대로 자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재미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 자수가 집에서 부업으로 하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꾸준히 해왔죠. 그래도 그땐 이게 특별한 재능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요즘처럼 활동을 시작한 건 아이들이 다 크고, 저한테 이런저런 공모전을 나가보라고 권하면서부터예요. 어느 날은 딸이 서울에 신사임당 대회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예술 분야 경진대회인데, 40회가 넘는 역사를 가진 큰 행사였어요. 거기엔 나가 장원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자수 부분에서 장원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용기가 생겼죠. “이게 집안에서만 할 일이 아니구나, 나도 밖에 나가면 잘 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기관에 수업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수업을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해줄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수업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배우고자 하였고, 알음알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은 일주일에 2~3팀 정도 가르치고 있어요.

Q. 가르치는 일을 하고자 대학에도 입학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나이 60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죠. (웃음) 사람들이 제게 배우러 오고 싶어 하고, 저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제 경력이 걸리더라고요. 자수는 잘 하는데, 어디서 상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증명할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참

열심히 찾아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학력도 갖추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전공은 전통 자수이고, 지금 3학년이라 내년엔 졸업해요.

Q.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졸업전시도 하시겠네요!

네. 멋진 졸업전시로 대학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졸업 후엔 많은 사람들이 돈 조금 들이고 자수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싶고요.

Q.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자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통자수는 수강료나 재료비가 비싸거든요. 취미로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 이득을 챙기기보다, 저렴하지만 제대로 된 전통자수 수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걸 알려주고 싶고, 내가 부족하다면 채워서 잘 전수하고 싶어요.

Q. 장인발굴프로젝트는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어요?
우리 딸이 알려줬어요. 딸이 거의 매니저예요. (웃음) 각종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찾아다 줬요.

Q. 이번 장인발굴프로젝트 수업은 어떠셨어요?

이번엔 참여율이 높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잘 불러주고 원한다면 늘 수업하고 싶어요. 경기상상캠퍼스에 사용 가능 공간이 참 많더라고요. 시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줘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통자수를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 지원 좀 안될까요? (웃음). 수원은 행궁도 있어서, 전통을 알리는데 의미가 더 큰데! 저 같은 사람에게 공간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생겼어요.

Q. 장인 활동을 통해 생긴 삶의 변화가 있나요?

행복해요. 나이 60이 지나면, 늙었다고 식당에서도 잘 안 써주거든요. 집에 있거나, 등산을 다니는 게 전부예요. 한데 전 정말 바빠요. 이렇게 활발하게 사는 게 행복해요. 또, 가르치는 활동을 하다 보면 70세가 넘는 분도 계시고, 젊은 주부나 청년들도 만나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운을 받는 것도 좋아요.



장인학교 비법서

타일시공의 장인 | 문유신

취재 이연우(사만키로미터)



Q. 어떤 계기로 타일 시공계에 발을 들이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현장에 가깝게 지냈죠. 저도 관련 일을 많이 해봤는데, 타일은 시공하는 사람에 따라 퀄리티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매력적이라 느꼈고, 제 성격과도 맞았어요. 시작 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네요.

Q. 타일 시공은 어떤 경로로 배웠나요?

타일 시공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을 받은 뒤에 타일 시공을 잘 하시는 분에게 가서 배웠죠. 그분 아래에서 2년 정도 일하고, 다른 사장님들 밑에서도 일하다가 2017년에 독립했어요.

Q. 타일 시공은 장인이 돈을 버는 수단인데, 시민들에게 나누게 된 계기가 있나요?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게 되었어요. 시공의 기초, 건축 문화, 올바른 자세, 합당한 페이를 사람들에게 알려, 올바른 인테리어 문화가 정착하는 것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타일이 가진 매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도 싶고요. 또, 제가 나누는 걸 원래 좋아해요. (웃음)

Q. 장인의 말씀처럼 요즘 셀프 시공이 유행인데, 타일이 확실히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맞나요?

네. 위험한 도구만 다루지 않는다면, 비전문가도 할 수 있죠.

Q. 그렇다면 장인 선생님이 일을 잃게 되는 건 아니가요? (웃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셀프로 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셀프는 보통 주방이나 화장실의 일부분을 하곤 하는데, 그 정도의 일은 오히려 저희에게 의뢰 주시면 해드리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셀프로 하는 것에 찬성이고, 오히려 올바른 시공법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는 전문가이고, 퀄리티가 다르니 일을 잃게 되진 않아요.

Q. “내 기술로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공을 했는데, 소비자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쁘다고. 돈을 주면서도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이 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Q.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타일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나요?

성실함인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많이 되는 현장이니 까 더 잘해야 하고, 돈이 안되는 현장은 덜 해도 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죠. 시공 퀄리티가 최고라는 것보다는 마음가짐이 최고라는 생각을 해요.

Q. 수업을 안 듣고 셀프 타일 시공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선행학습이 되어야 해요. 인터넷으로 배우시더라도. 어디에 어떤 본드를 써야 하는지는 적어도 알아야죠. 마감도 그렇고요. 무턱대고 할 순 없어요.

Q. 그럼 일반인들이 타일 시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요새 아카데미 설립을 생각하고 있어요. 셀프 시공에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취미처럼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Q. 타일러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타일 학교, 국가 직업학교에 다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타일 시공에 대해 100%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구를 다룰 줄 알게 되니까 기관을 다녀오는 게 유리해요. 그 후에 현장에서 배우면 훨씬 좋죠. 현장에서 배우는 건 당연히 해야 하고요.



장인학교 비법서

요리의 장인 | 송덕미

취재 이연우(사만키로미터)



Q. 본업이 어떻게 되세요?

전 20살 큰 아이와 8살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Q.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까지 모두 보유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요리에 열정을 쏟게 되셨나요?

자격증은 딴 지 오래되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요. 계기가 특별히 있진 않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만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무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한테 요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웠어요. 제가 주부이기도 하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요리를 접했거든요.

Q. 오늘 메뉴인 삼색 경단과 수박화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오늘 메인 요리인 삼색 경단은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여서 선택했어요. 여러 가루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삼색이 예쁘기도 하고요. 카스텔라를 이용할 거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수박화채는 여름철에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이라 선택했습니다.

Q. 어린아이들에게 삼색 경단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에요?

삼색 경단은 고물을 묻혀 먹는 떡이에요. 오늘 만든 삼색 중에 한 색은 팔을 이용했는데요, 수수 팔단자 아시죠? 수수 팔단자는 예부터 팔이 나쁜 액을 물리친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이에요.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설기나 수수 팔단자를 마을에 돌리곤 했죠. 저 역시 저희 아이들에게 곧잘 해줬었어요.

Q. 저번에는 청소년들이었고 이번엔 더 어린아이들과 요리 수업을 해보셨는데, 많이 다르던가요?

지난번에는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했었어요. 사춘기 아이들이라 그런지 엄청 조용하고 별 애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큰아이를 키워봐서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끝날 때쯤엔 재미있다고 반응을 해줘서 안심했어요(웃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둘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 아이인 것 마

냥 보게 되었어요. 또, 이번엔 엄마들과 공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하는 마음으요.

Q. 이번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혹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남을 가르치는 일이나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준비할 때 많이 고민스럽긴 해요. 긴장도 되고요. 사실 어제 잠을 설쳤어요(웃음). 그나마 저번에 한 번 했었다고 이번엔 저번보다 조금 나았네요(웃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흡족해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흡족해야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Q. 장인발굴프로젝트를 통해 생긴 삶의 변화가 있나요?

그럼요. 일단 누군가에게 내 재능을 공유한다는 것이 부듯해요. 아이한테도 엄마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둘째가 자기 엄마 요리사라고 자랑하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해보면 좋겠더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자신감이 붙는 달까? (웃음)

Q. 다음번엔 어떤 분들이랑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나이는 아이들이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요리는 잘 하시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그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Q. 장인발굴프로젝트처럼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지만 다른 것을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장인끼리 모여서 한차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오셨거든요. 저는 악기를 하나라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풍물 하시는 분은 공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기회 되면 배워서 참여해보고 싶어요.



장인학교 비법서

요리의 장인 | 이화자

취재 이연우(사만키로미터)



Q.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류 1동 부녀회장을 한 경험이 있고요. 부녀회장을 하면서 요리에 관련된 행사를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다문화 요리 강사도 하고 있고, 장인으로도 참여하고 있죠.

Q. 요리에 관련된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리 영역에서 활동을 넓힐 수 있었나요?

경험이 많아서 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42살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이 30명쯤 됐었죠. 남편이 떠난 후엔 저 혼자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애들까지 키웠어요. 사람을 이끄는 일을 많이 했고, 김장도 크게 많이 해봤으니, 마을의 큰 행사들도 잘 진행할 수 있었나봐요. 부녀회장이 되고 나서 더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고요. 저번 세류 1동 메밀꽃 축제에서도 소머리국밥이랑 잔치국수를 했는데, 천명분을 요리했어요. 그렇게 큰 양을 요리하는 데에 익숙해서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마을 봉사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기가 있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 혼자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빚도 있었고요. 한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받는 만큼 베풀고 싶었는데, 애 키우고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서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일을 해서, 쉬는 게 잘 안돼요. 자식들은 이제 좀 쉬라고 하는데, 놓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아파도 누가 제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만 해주면 뿌듯하니까 계속 요리를 하게 돼요.

Q. 장인으로 위촉된 후, 요리사 자격증도 따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음에서 따게 되었나요?

장인발굴프로젝트 면접을 봤을 때, 다른 장인들은 대부분 자격증이 2~3개씩 있었어요. 나름 요리 장인으로 왔는데 자격증 하나 없이 장인이 된다는 게 조금 창피했죠. 난 젊었을 때 뭐 했나 싶더라고요. 물론 먹고살기 바빠서 그랬지만요. 지금이라도 요리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웃음)

Q. 자격증을 딴 후, 요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맛만 생각했다면, 이전 재료를 이해하고 손질하는 법이나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오늘 수업한 돈가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그냥 튀겼으니까 울퉁불퉁하게 구워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고기에 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고기 끈을 칼로 끊어줘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돈가스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Q. 오늘 수업 주제가 '옛날 돈가스'였는데요, 왜 이 주제를 선택하셨나요?

아이, 엄마, 아빠가 같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밀가루와 계란 물, 튀김가루를 손으로 조물락 거리며 고기에 묻히면 엄마나 아빠가 튀겨주기만 하면 돼요. 또, 어른들에게 옛날 돈가스는 추억거리이기도 해요. 옛날엔 '데이트'하면 돈가스였거든요. 우리에겐 최고급 음식이었죠. 윗세대와 아래 세대가 모두 좋아할 수 있는 메뉴지요.

Q. 돈가스에 카레가루를 뿌리고, 소스에는 땅콩가루를 넣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땅콩은 고소한 맛을 가미하고 영양가도 주기 위해서 넣기 시작했어요. 카레가루는 딸이 준 아이디어예요. 우리 딸이 카레도 좋아하고 돈가스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돈가스에 카레가루를 넣어 보는 게 어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려봤더니 느끼함과 눅눅함이 줄어 훨씬 담백해졌어요. 그 후부터는 줄곧 카레가루를 섞어요.

Q. 지금까지 만든 돈가스는 몇 개나 될까요?

셀 수도 없죠. 애들 생일 때마다 만들어주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해주는걸요. 안심 2만 원 어치만 사놓으면 3일 치 먹을 양은 나와요. 집에서 하면 수업할 때보다도 간단하게(익숙한 주방이니깐) 만들 수 있으니 정말 금방 해먹을 수 있어요.

Q. 이번 장인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아까 한 아이가 '아빠가 여기 오기 싫어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체형 같은 건 자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같이 왔는데, 수업이 끝나니까 아빠가 '다음에 또 데리고 오겠다'고 했대요. 아빠의 마음을 바꾸게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Q. 선생님에게 장인 발굴 프로젝트란?

요리를 특별히 잘 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내 장점을 끌어내준 프로그램이라 정말 감사해요.



장인학교 비법서

요리의 장인 | 오수옥

취재 이연우(사만키로미터)



Q.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권선시장에서 '나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수옥입니다.

Q. 나연 식당이 한식당이라고 들었어요. 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먹고살기 위해서 시작했죠. 저는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이전에도 식당을 한 적이 있고, 비디오 가게, 신발 가게, 꽃집, 목욕탕에서도 일해봤는데... 음식이 가장 좋았어요. 내가 가장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식당이더라고요. 다시 식당을 자리 잡고 시작한 지는 11년 정도 되었어요.

Q. 나연 식당의 주메뉴는 뭔가요?

닭볶음탕이랑 제육볶음. 식사 위주로 해요.

Q. 나연 식당이 천장 기부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손님이 주신 팁을 재미로 천장에 붙인 거였어요. 벽에다 붙이면 손님들이 떼갈 수도 있으니까 천장에 붙였죠. 그랬더니 한두 명씩 따라서 천장에 붙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돈을 모아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많이들 해요. 지나가다가도 하고, 그거 하러 오기도 하고, 자랑하듯 기부하기도 하고. 모인 돈은 권선 1동이나 노인복지 쪽에 기부해요.

Q. 봉사도 열심히 하신단데요.

봉사는 제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봉사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 건 제가 희귀질환을 앓게 되면서였어요. 죽을 때까지 베풀다 가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더라고. 1~2년 안에 죽을 줄 알고 시작했는데 벌써 6~7년이 지났어. (웃음) 사는 데까지는 하려고요. 봉사는 남을 돕는 거지만 그 행위가 날 돕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가족들도 내가 봉사활동하고 기부하는 것에 대해 뭐라 안 해요. 오히려 태워다 줘요.

Q. 오늘 수업 주제인 '라이스 닭갈비'는 처음 듣는데,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공모전에 나가려고 만든 레시

피였어요. 닭을 이용해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요리를 하는 게 공모전 주제였거든요. 그때 그거 나가려고 준비는 다 해뒀었는데, 실수로 못 나왔어요. 점수를 한 줄 알았는데 안되었더라고요. 내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랬죠. 아쉽지만 여기서 이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보통 떡갈비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밀떡이 들어가는데 라이스 닭갈비는 그거 대신 닭이랑 쌀, 야채를 넣어요. 엄마가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한 손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서 오늘 하게 되었죠. 동그랑땡처럼 라이스 닭갈비에 두부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팁을 주자면, 난 동그랑땡 만들 때 두부가 아니라 순두부를 넣어요. 훨씬 부드럽거든요. 두부를 넣고도 만들어보고 넣지 말고도 만들어보세요. 둘 다 맛있을걸요? (웃음)

Q. 오늘 요리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포인트는 닭 가슴살의 신선도예요. 닭은 정말 빨리 상하거든요. 제가 닭볶음탕 전문점을 하잖아요. 많이 다뤄봤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 정말 민감해요.

Q. 장인발굴프로젝트를 통해 삶에 생긴 변화가 있다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어요. 이전에 저는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숯기가 너무 없어서 떠먹여줘도 못하는 성격이었죠. 장인발굴프로젝트나 봉사 활동을 하고 나서 남 앞에서 얘기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 누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해도 부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성격으로는 스트레스받아서 정말 살기 힘들었는데, 그걸 탈피해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장인 인증서를 줘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장사에도 도움이 되었고, 자랑스러운 내 표식이 생긴 것 같아 좋아요.

Q. 앞으로 장인발굴프로젝트처럼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특별한 건 없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엔 더 색다른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 새로운 것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장인학교 비법서

요리의 장인 | 이희자

취재 이연우(사만키로미터)



Q.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서둔동 부녀회장을 4년째 맡고 있는 이희자입니다. 장인발굴프로젝트에 작년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여름 프로그램과 겨울 김장 체험을 진행했어요. 올해는 오늘처럼 요리교실을 하게 되었고요. 본업은 주부예요.

Q. 장인발굴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부녀회장이자 보니 권선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저보고 참여해달라기에 면접을 보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Q.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리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평소 소외된 어르신들과 낙후 지역 주민들을 돕고 싶었어요. 마침 부녀회장이 되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요리로 봉사를 시작한 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자신 있는 분야여서 시작했어요.

Q. 요리에 자신감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한 15년 전쯤, 몸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인스턴트는 일절 끊고 친환경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특히 토속음식에요. 고추장이랑 된장도 만들어 먹었어요. 그렇게 사니 정말 몸이 좋아 지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 지식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Q. 어떤 요리를 지향하시나요?

앞서 말했듯 토속적인 음식들을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절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즐겨먹어요. 이번 수업에서도 '화전'을 했는데, 화전은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에 단합을 위해 먹는 음식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겐 생소할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전통을 알려주고 싶어요.

Q. 오늘 화전에서 쓴 꽃들을 소개해주세요.

달맞이꽃, 수국, 채송화, 장미, 여주 같은 것들이에요. 모두 먹을 수 있는 꽃 들이고 사운게 아니라 직접 기른 거예요.

Q. 이번 수업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요?

오늘 수업 듣고 가진 분들이 정말 좋아하셔서 기뻐요. 다음엔 어떤 걸 하실 생각이냐고 묻길래 다음엔 강정을 만들어볼까 한다고 했더니 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유 음식을 알리는 메뉴로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Q. 장인에게 장인발굴프로젝트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전통'이란 것도, 사람이 있어야만 계승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전해야 문화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장인학교 비법서

풍물의 장인 | 황미라

취재 임수정(청소년취재단)



Q. 안녕하세요, 경기상상캠퍼스 청소년 취재단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장구 교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장인 '황미라' 라고 합니다.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Q.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볼게요. 사물놀이에는 어떤 종류의 악기들이 있나요?

징, 팽과리, 장구, 북이 있습니다.

Q. 그중 선생님에게 가장 애착 가는 악기는 무엇인가요?

장구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하였고, 세고 약한 부분을 자신의 개성대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며, 그만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장구를 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Q.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 남녀노소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에선 가족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Q. 사람들의 사물놀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 같나요?

사실 사람들은 사물놀이를 그다지 가깝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지루하고 잠 오는 음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요즘엔 사물놀이로 케이팝을 연주해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올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현대 음악을 사물악기들로 연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사물악기나 우리나라 전통 악기만이 아닌 외국의 악기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실력이 출중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욱더 실력을 갈고닦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넘어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악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현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에,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Q.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물놀이를 사용하는 악기가 총 네 가지인데, 가족 구성원이 네 악기를 각각 연주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 몇몇 가족은 네 명이 안 되어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끝마치게 되어 부듯하였습니다. 다음엔 가족을 넘어서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현대인들의 사물놀이에 대한 인식이 변하길 빌며,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동네 장인을 찾아서

내 몸 사용법의 장인 | 김민경

취재 김은서(청소년취재단)

등산 장인 | 조영미

취재 김진주(청소년취재단)

춤 장인 | 유호정

취재 홍서연(청소년취재단)

수학 장인 | 최린

취재 윤은수(청소년취재단)



내 몸 사용법의장인 김민경

동탄중 2학년 학생. 어릴 때부터 학교 운동장을 누비던 체육 소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김은서(질문자)의 친구. 체육 수행 올 A를 받고 뛰어난 상처 치유 능력,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보여주며 운동신경이 1도 없는 질문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내 몸 사용법의 장인'이 됨.

글/사진/그림 김은서



Q. 운동이 좋은 이유

A. 어릴 때 우연히 친구들과 축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구기종목에 빠져버렸어. 하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있더라고.

Q. 운동을 좋아하게 만들어 준 것이 있다면?

A. '하이큐'라는 만화를 딱 보고 나서 배구라는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지. 아, 하이큐는 배구에 대한 만화야. 이 애니를 처음에 보고 배구에 빠져서 그때부터 하이큐를 보면서 배구에 대해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

Q. 어떻게 체육 수행 올 A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A.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리고 승부욕이 생겼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해봤는데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행 볼 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혼자 할 때보다는 경쟁자가 있을 때 더 실력 발휘가 되더라.

Q. 운동이 좋아서 좋아하게 된 것이 있다면?

A. 원래 구기종목만 좋아했었어. 그런데 다른 운동들도 좋아졌고, 운동에 관련된 만화들도 좋아지게 됐어.

Q. 내 몸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A. 확실히 많이 운동하다 보니까 뛰거나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같애.

Q. 그건 그냥 너가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닐까?

A.(웃음) 그런가?

Q. 너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A. 어떤 부분에서 말이야?

Q.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말이야.

A. 신체적으로는 운동 많이 하니깐 당연히 건강해야지!! 그리고 심적으로도 건강하지 뭐, 스트레스받을 때도 격하게 운동하면 풀어지거든.

Q. 다치더라도 금방 낫는다고 전에 말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을 수 있는 거야?

(작년에 물구나무를 서다가, 뛰다가 등등 무릎을 많이 다쳤던 장인은 한 달 후에는 매끈한 무릎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상처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질문자가 봤다)

A. 근데 보통 이런 상처 치유 능력 같은 거는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회복 능력이 빠른 것 같아.

Q. 가족들도 다 빨리 나아?

A. 그렇지 않아.

Q. 작년(2017)과 올해(2018) 다이어트에 성공했잖아. 결과가 어땠어?

A. 보람을 느꼈지.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에서 힘들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행복했어. 한 4~5키로 정도 빠졌어.

Q. 다이어트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어?

A. 되도록이면 저녁때 조금만 먹으려고 하고, 운동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구기종목, 그니까 축구나 야구, 농구 같은 건데 그 중에 농구를 가장 좋아해. 그래서 주말마다 농구를 한다든지 하면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있어.

Q. 지금도 다이어트가 현재진행형이야?

A. 아, 어.

Q. 목표는?

A. 음... 거울로 봤을 때 '나 좀 괜찮은데?' 싶은 핏?

Q. 다이어트는 모든 여자의 적이잖아. 그런데 왜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A. 한 번 다짐했을 때 그 다짐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데,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그런 자기의 의지를 깨는 사람들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닐까? 나는 살이 빠져서 잘 모르겠네.

Q. 채수 없네.

Q.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아예 안 먹는 건 나중에 요요가 오기 쉽기 때문에 안 좋아. 기간을 뒤서 살을 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살이 찌기 때문에 뺀 게 소용이 없지. 그니까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대로 먹고, 야식만 줄이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나처럼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

Q. 브로콜리 좋아해?

A. 뭐. 그냥 먹어.

Q. 난 싫어.

A. ...어

Q. 운동할 때 불편했던 점 있어?

A. 다치는 게 제일 불편해. 아프잖아.

Q. 장인처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해?

A. 절대 밥 굶는 건 안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끼니 시간 때 잘 먹고, 다이어트를 할 때 몸의 핏이 맘에 안 든다 싶으면 고기랑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채소 위주로 많이 먹어.

김민경 장인의 팁 3

이렇게 살면 나처럼 건강하다!

신체적

- 1. 밥 골고루 먹어
- 2. 유혹에 흔들리지 마!
- 3. 운동해.

심적

- 1. 혼자 고민하지 마.
- 2. 운동으로 풀어.
- 3. 깊게 고민하지 마.



무리하지않고 즐겁게하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에서 힘들
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운
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수 있다는 것이 좀
행복했어~



등산장인

등산장인 조영미

나는 등산을 정말 싫어한다.
올라갈 때는 힘들고 내려올 때는
넘어질까 긴장되는 것이 싫고
등산의 재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
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등산을
다니며 주말을 즐기는 한 분이
계신다. 등산의 어떤 점이 그 분을
등산장인이 되게 했을까.
지금부터 만나보자!

글/사진/그림 김진주



Q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산을 좋아하고 걷기도 좋아하는 조영미 입니다.

Q : 등산은 언제부터 즐겨하셨나요?
A : 약 10년 전 딸이 초1 때부터 주로 딸과 함께 경희대 뒷산을 시
작으로 수원 근교의 여러 산을 다녔습니다.

Q : 등산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집 근처
나 산을 다니라고 권유하셔서 그 때부터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Q : 산후우울증을 진단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A : 우울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었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Q : 등산이 효과가 있었나요?
A : 네. 기분이 좋아졌고 활기차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Q : 주로 자녀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아이가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나
TV를 보니다. 그런 아이를 검사검사 운동 시키려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 자녀분도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A : 아니요. 매번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해야 가겠
다고 합니다~

Q : 주로 무엇을 사주시나요?
A : 등산 후 내려와서 근처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을 사주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등산 전에 미리 아이스크림을 사서 보냉병에 담아
산 정상에서 나눠 먹은 기억이 나네요.

Q : 등산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A : 글썄요. '밖에 나오니 좋다.', '걸으니 좋다.',
'날씨 좋네.' 이런 생각을 주로 하네요.

Q : 등산장인님이 생각하는 등산의 장단점은 무엇
인가요?
A : 장점은..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딸과의 소통?
저는 일 때문에 바쁘고 아이는 학교 다니고 학원 다
니느라 아침과 저녁 외에는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
어요. 그래서 같이 등산을 하면서 아이가 요새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지, 힘들거나 고민되는 일은 없는지 등의 평소애 하
지 못 했던 얘기를 나누며 아이에게 친근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불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Q : 등산장인님! 성인에게 추천할만한 산이 있을
까요?
A : 저는 개인적으로 칠보산이 좋았습니다. 산이 높
지는 않지만 적당한 암릉과 소나무가 많아서 경치가
좋아요. 하산 후 칠보산 입구 쪽의 보리밥집에서 먹
는 보리밥과 청국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른 성인
분들도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Q : 학생에게 추천하는 산은요?
A : 경희대 뒷산(매미산)이요. 산 높이가 적당하고
2시간 정도면 산 한 바퀴 돌 정도의 코스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평소에 아이와 친하
게 지내던 옆집 남매와 같이 경희대 뒷산에 갔었어
요. 그 아이들과 같이 년센스 퀴즈를 풀었던 기억
이 납니다.

Q : 혹시 그 때 풀었던 년센스 퀴즈 내용이 생각나
시나요?
A : 아니요. (웃음)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어떤 내용
이었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Q : 마지막으로 풍경이 좋은 산을 추천해주세요!
A : 광고산 좋아요. 봄에는 실록 좋고 예쁜 꽃 활짝
피고, 여름에는 울창하고 작은 계곡이 있어서 시원
해요. 가을에는 단풍 예쁘고 특히 겨울에는 쌓인 눈
이 정말 멋졌습니다.



등산장인이 추천하는 산 top3 왼쪽부터 광고산, 칠보산 매미산

Q : 등산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A : 화장실이요. 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지만, 화장실이 별로 없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Q : 마지막으로...맛있는 것을 사주어야 등산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A : '천리길도 한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접근처 산을 가세요. 그러면 등산의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Q : 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엄마!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라뷰~~)

등산장인의 필수템 Top3!

‘나는 등산할 때 이것만은 꼭 챙긴다!’



Top.1 등산화

등산화는 산행에 필수입니다.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운동화보단 등산화!

장인's 등산화 tmi : 장인은 보라색을 좋아한다.

Top.2 배낭

등산 시 배낭 안에 소지품을 넣으면 손이 자유로워서 활동하기에 편해요. 또한, 뒤로 넘어질 때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방풍 효과는 덤!

장인's 배낭 tmi : 장인의 Must have item no.1이다.



Top.3 장갑

여름철 자외선, 겨울철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등산 시 나무나 바위를 잡을 때 또는 넘어져서 땅을 짚을 때 손의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장인's 장갑 tmi : 장인은 보라색보다 주황색을 좋아한다.

모자, 겹옷 그리고 장갑이 모두 주황색!



등산장인의 봉사?

올해 초부터 경기옛길과 남한산성길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안내 리본을 달고 안내판과 스탬프함 등의 상태를 관찰하고 수리 여부 등을 보고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삼남길 걷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걸으면서 봉사도 할 수 있다고 하여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스탬프함의 도장이 없어 젖거나 망가진 것을 여러 번 보고, 관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총장인

춤장인 유호정

‘춤’의 즐거움 속으로

‘춤도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춤과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춤 장인 춤을 추면 그 누구보다도 춤에 홀려 춤을 추는 춤 장인

글/사진/그림 홍서연



〈 춤과의 인연 〉

Q. 춤을 잘 추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언제부터 춤을 추시게 되었나요?

A. 저는 취미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센터를 다녔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찻고 제대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Q. 중학생 때와 고등학생 때 교내에서 춤 관련해서 한 활동이 있으신가요?

A. 댄스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학교 축제에서 반끼리 공연하는 것을 주도하여 무대를 만들어나갔습니다.

Q. 현재 댄스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생일날에 친구들이 아침 연습 때 깜짝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티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놀랐고, 감동이었고 고마웠습니다.

〈 춤 연습할 때 이것만은 지킨다. 〉

Q. 평소 춤 연습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나요?

A. 춤을 출 때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라 기본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댄스 장르 중 하우스를 출 때 스텝의 정확성을 신경 씁니다. 또한 또 다른 장르 중에서 왁킹을 할 때는 팔의 정확성과 아이솔레이션을 신경 씁니다.

Q. 춤출 때 곡 선정 시 신경을 쓰는 사항이 있나요?

A. 제가 그 노래에 맞는지와 컨셉이라 분위기도 봅니다. 예로 설명해드리자면 체육대회 공연을 준비할 때에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또한 체육대회에 어울리는 밝은 곡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 〉

Q. 춤을 추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 저랑 같이 학교에서 댄스부를 하였던 친구들도 진로가 춤 쪽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댄스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저는 댄스학원을 못 다니고 그걸 보고만 있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Q. 현재 학생이시고 학업에도 열중하시고 계시기에 춤과 공부 두 개를 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민이나 힘든 사항이 있나요?

A. 시간이 부족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깐 저의 취미생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도 하려다 보니 공부를 할 때 연습을 못 하게 되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 미래를 위해 〉

Q. 춤을 추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마디

A. 나도 고민하고 있어 같이 힘내자

Q. 앞으로의 목표와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A.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도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춤으로서 다른 분들께 인정을 받고 싶고 대학에도 진학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태해지는 게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부와 춤을 병행하면서 더 치열하게 살 것입니다.



HOW CAN I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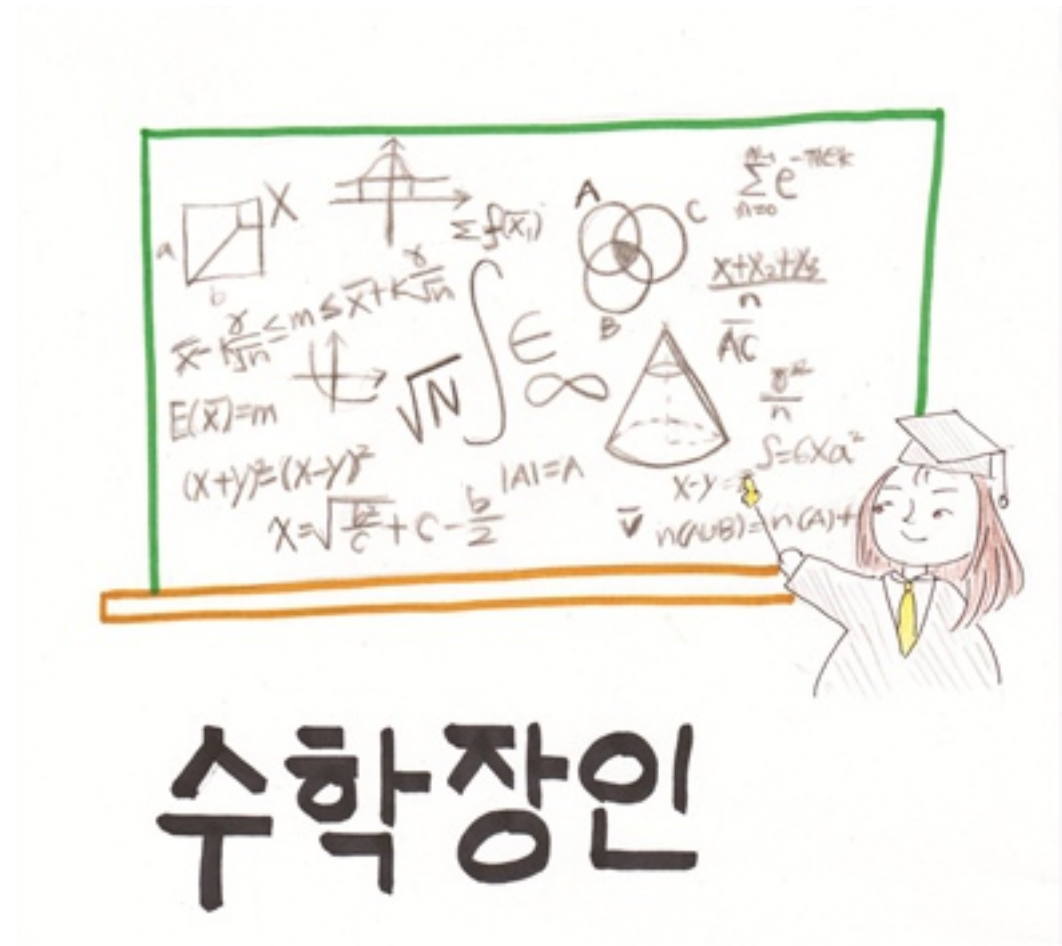
Q. 춤을 추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춤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A. 제일 쉬운 것은 K-POP을 따라 추는 것입니다. K-POP은 접하기도 쉽고 안무도 다른 것에 비해서 쉽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는 수많은 아이돌 가수들의 춤 영상, 커버 댄스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를 찾아 따라 추시면 됩니다.

Q.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칠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춤장인의 팁 3가지

1. 유튜브를 통해 먼저 춤에 대해 접하기
2. 교내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선후배들과 춤 연습을 하며 실력 기르기
3. 지역마다 있는 문화 기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지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춤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수학장인

수학장인 최린

글/사진/그림 윤은수



수학 장인의 이야기

Q. 특별히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Q.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문제를 풀었을 때 확실하게 답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저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Q. 수학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학원 선생님께서 시험 점수를 불러 주셨었는데 저만 빼고 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슬퍼했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속상해서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네요 ㅎㅎ.

Q. 수학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단원이나 부분이 있나요?

A. 음.. 확률과 통계 부분을 좋아해요. 문제가 무거워 보이지 않아서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공부 꿀~팁

Q. 수학 공부,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가장 기본으로는 학교 수업을 듣고 부족한 점은 학원에서 보충을 합니다.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ebs 인강을 듣습니다. 공부량은 총 3권의 문제집을 풀고 교과서는 최소 3번 정도 복습을 합니다.

Q.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A.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과 유형 별로 어떻게 푸는 지를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A. RPM이 기본을 다지기에 좋고 문제도 쉽게 잘 풀려서 좋은 것 같아요.

Q. 하루에 수학은 몇 시간 공부하시나요?

A.저는 수학만 파서 수학 공부 시간이 조금 긴 편인데요, 하루 2시간 정도 해요.

Q. 수학을 포함해서 공부를 하기 싫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A. 공부를 하기 싫을 땐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일이 시험 직전인 것처럼 열심히 하라”,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라”와 같은 공부 명언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Q. 수학 장인에게 수학이란 무엇인가요?

A. 저에겐 수학이란... 삶의 원동력..?★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Q.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수학은 겁을 먹고 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쉽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꼭 잘 할 수 있을거예요.



나는 장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 어떤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멋있는 사람 ”

장인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고 누구든지 장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진짜 장인이다' 당신은 어떤 장인인가?

- 청소년취재단 김문서 -



<문찬우>

장인박을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장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 모두 자기 분야에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장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하였다.

내 주변사람들 중에 나를 취미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시청가만이어서 원자들은 제치했고 독산을 좋아하든 영아를 취미했다

영아가 산악수영을 즐겼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치운을 위해 독산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에 같이 독산하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고,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영아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사실 처음에 영아가 인터뷰 하는 것을 조금 귀찮아하셔서 계속계속 걱정했는데
그 후 오진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인터뷰를 주정하는 때에는 영아가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장인박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영아랑도 가까워지고 여러 영도일을 만드면서
부끄러운 것도 있어서 더욱 좋았다. 내년에도 진행된다면 장래도 많이 큰 소는 직접인
원구독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김민주

장인발굴 프로젝트 매거진

발행정보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발행일 2018년 12월 1일
기획/진행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생활문화센터
편집기획 40000km | 오린지, 이연우, 김진아, 백조은
취재단 김은서, 김진주, 윤은수, 임수정, 홍서연
지원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생활문화센터 이채린

경기상상캠퍼스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96-1980
홈페이지 <http://sscampus.kr>

© 2018 경기문화재단

이 책은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장인발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기



경기상상캠퍼스